

# 스키장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의 배경과 정비에 따른 문제점\*

金炯瑞\*\*

< 차례 >

I. 동계 관광수요 대응을 위한 스키장 개발의 중요성	3. 관광개발의 배경
II. 알프스 산맥 관광 개발의 배경	4. 스키장 개발의 유형과 변화
1. 관광개발의 다양성	5. 프랑스의 스키장 개발 현황
2. 관광개발의 원칙	III. 한국의 스키장 개발 배경과 문제점 조명

主要語 : 관광 개발, 동계 스포츠, 지역 경제 발전, 자연 환경 보호, 관광수요와 공급, 산지 개발

## I. 동계 관광수요 대응을 위한 스키장 개발의 중요성

우리 국토의 75% 이상은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들어 관광 행태가 다양화, 대량화 되어 가고 있으므로, 동계 관광수요에 대비한 산악 관광 자원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울경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내수 시장에서 연 평균 20%의 성장률을 예상<sup>1)</sup>하고 있는 동계 스포츠인 스키장의 개발은 필요 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랜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럽 알프스 산맥에 인접한 국가, 프랑스의 예를 살펴보고 우리의 경우와 비교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최근 들어 국가의 에너지 산업 합리화 대책으로 폐광이 되어 버린 태백, 정선 지역에 대규모 관광 단지 개발 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태이다. 그 주요 사업 중 하나가 대규모 스키장 개발 계획(Snow Mountain World)이며, 개발 초기부터 사업 주체자는 이미 프랑스의 기술 용역 회사에게 각종 스포츠, 레저 시설의 설계를 맡긴

상태고 보면, 그들의 개발 방식이나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이라 할 수 있겠다.

## II. 알프스 산맥 관광 개발의 배경

대부분 서유럽 국가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알프스 산맥의 개발 사례중, 프랑스의 스키장 개발에 관련된 산악 지형 이용과 관광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과 자원의 적절한 보호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알프스 산맥 지역개발의 배경을 살펴보면, 산악 지형 가운데서 보기 드물게, 오랫동안 전통 농업(목축업)활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 온 산악 거주 인구가 있고, 이들이 삶의 터전으로 이용해 온 기존의 부락에는 많은 문화 유산과 인문 자원 등 민속자료가 산재해 있으며, 지난 1세기 동안 관광 개발에 역점을 두어 그들의 경제적 자립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sup>2)</sup>

### 1. 관광개발의 다양성

이들의 관광 개발 형태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 본 단보는 1996년도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콜로퀴엄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태성전문대학 관광과 교수



〈그림 1〉 알프스 산맥 위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전통 농업과 도시민의 휴식기능을 결합시킨 관광 농원의 형태라든가, 마을의 축제나 각종 행사와 관광을 접목시킨 민속 관광, 종교(Catholic)행사나 성지순례 등 종교 관광, 각종 유적지나 문화 유산을 관광과 결합시킨 문화 관광의 형태가 있으나, 알프스 산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광 자원은 험난한 자연조건이었다.<sup>3)</sup>

즉 다시 말해, 알프스 산맥의 관광개발은 가파른 경사와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산정상, 험난한 지형과 엄청난 적설량, 일년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적설기간, 불리한 기후조건을 이용, 동계스포츠 개발에 주력하게 되었는데, 이는 산악지형의 이용과 개발 가운데서 성공적인 경제 발전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 2. 관광개발의 원칙

이들은 또한 산악지형을 관광지로 정비함에 있어서 개발 초기부터 지켜져 온 중대 원칙이 있었다.<sup>4)</sup>

그 원칙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보면, ① 도시민의 휴식과 오락기능을 위한 공간의 제공, ② 관광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 ③ 자연 자원

의 적절한 개발을 통한 활용과 환경의 보존 등이다.

위의 세 가지 관광 개발의 기본원칙을 조화롭게 이끌어 나가고자 한 장치로는 산악 지형을 이용한 정부 주도의 국립공원과 지방 자치단체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건설하기 시작한 지방 자연공원, 자연 자원의 완벽한 보호를 통한 자연 교육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Natural Reserve 등, 그 노력의 흔적은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

## 3. 관광개발의 배경

유럽 대륙 最高, 最大의 산맥인 알프스는 19세기 말부터 산악 정복을 꿈꾸던 등반가들에 의해 각광받는 관광지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최초로 몽 블랑(M<sup>t</sup>.Blanc 4807m)을 정복하고자 많은 등반가들이 찾아옴에 따라, 배후 거점도시로서 샬모니(Chamonix)와 같은 산악 도시들이 관광지로 이용되어져 왔으며, 관광 관련 부대시설물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이후 기존의 마을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되기 시작한 스키장은 1920년 이탈리아를 필두로 현재 약 1000여 개의 크고 작은 스키장을 보유하고 있어, 전세계로 부터 동계스포츠인 스키를 즐기기 위한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커다란 원동력을 제공한 스키장 개발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로는 기존의 부락을 이용, 각종 숙박시설과 기존의 각종 사회기반 시설 (Infrastructure)을 이용하여 건설되어진 스키장과, Ex Nihilo 스키장, 즉 라틴어로 “無에서부터”란 뜻으로 아무런 기초시설물이 없는 곳에 관광지 개발이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각종 부대 시설물과 위락시설 정비가 이루어진 유형이 있다.

참고로 우리의 경우, 모든 스키장은 Ex Nihilo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개발과 정비에 있어서 많은 투자비용이 필요하고, 외부 자본의 유입으로 스키장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해 지역주민의 개발 참여라든가,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 4. 스키장 개발의 유형과 변화

프랑스의 스키장 개발은 크게 4가지로 세대구분을 할 수 있는데, 스키장 개발의 주체와 정비의 유형에 따라, 큰 변화의 맥에 따라 구분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5)</sup>.

제1세대는 1934년 알프 듀에즈(Alpe d'Huez)라는 스키장 개발을 필두로 하는데, 이는 기존의 부락을 이용,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정비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관광수요의 자연스러운 증가로 스키장 개발이 이루어진 형태로서 점진적인 인공시설물의 설치가 이루어져 왔고, 따라서 환경의 커다란 파괴없이 개발이 이루어진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제2세대는 1948년 꼭슈벨 (Courchevel)이라는 스키장이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Collectivités Locales, Local Authority)가 지역경제 발전의 차원에서 개발에 적극 참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스키장 개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을 삼겠다는 지방 자치화의 결실이라 할 수 있겠다.

제3세대는 운영의 독점화로 대표되는데, “單一화된 스키장”(Station intégrée)으로 표현된다: 1960년에서 1970년 사이에 개인기업에 의해 스키장의 건설과 그 운영이 이루어지며, 스키장 정비에 관련된 모든 스포츠 시설과 각종 부대시설, 즉 숙박, 위락시설의 정비가 일개 업체에 의해 총괄되어진다. 특히나 고도가 높아져 적설기간이 연장되고 그로 인해 스키 철(Ski Season)이 연장된 것이 그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투자비용에 대한 수익성이 고려되어진 예라 할 수 있는데, 人工雪의 도입이 본격화된 시기도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또한 인공설 생산을 위한 산악 지형의 수자원 관리와 개발 이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관광수요가 폭증함으로 인해 스키객을 보다 신속하고 대량으로 슬로프 정상까지 수송할 수 있는 각종 Ski lift, Cable car 등 인공 건조물의 설치가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스키장 개발에 큰 변혁을 가져온 시기로 대표된다.

제4세대는 앞서의 제3세대에 해당하는 스키장의 개발이 스키 Season의 연장을 위해 해발 고도가 높아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약점, 즉 해발 2200m 이상일 경우, 산림 자원이 빈약해 열악한 주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도를 다시 낮춘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동계, 하계 스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스키장 건설이 이루어 졌다. 지역 주민이 개발에 적극 참여토록, 개발에 참여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고, 또한 주위의 환경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건축기법을 도입하였다. 1975년에 건설된 발 모렐(Val Morel) 스키장은 여러개의 스키장을 연결, 관광객이 여러개의 인근 스키장에서 스키를 즐길 수 있도록 Ski Complexe를 위한 작업이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경영의 다각화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5. 프랑스의 스키장 개발 현황

프랑스의 주요 스키장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개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샤모니(Chamonix): Mont Blanc을 등반하는데 거쳐가야 할 거점도시로, 상주인구수는 300명인데 반해 관광 성수기에는 10000여명의 인구가 관광 관련 산업에 종사할 정도로, 관광산업으로 생존하는 도시라 할 수 있으며 최초로 스키장 건설이 이루어진 도시.

- 르제브(Megève): Albertville 동계올림픽 당시 각종 스키 종목 경기가 열린 도시.

- 발 디제르(Val d'Isère): 제 1 세대의 대표적인 유형. 우리의 전통 부락에 있는 3개의 건물은 東軒과 客寺, 그리고 書堂이 있었듯이, 그들의 전통적인 마을에는 항상 성당의 鍾塔, 우체국 그리고 초등학교 건물이 있는데, 성당의 높은 종탑은 스키장 개발이 전통 부락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며, 이후 기존 부락을 이용한 스키장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스키장 개발 이후의 각종 부대시설이 밀집되고 근대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산악지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시형착오로 스키장 개발에 따른 자연재해의 대

## 스키장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의 배경과 정비에 따른 문제점

표적인 눈사태가 40여 명의 사망자를 부른 경우로 관광개발 정비시 환경파괴의 요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라 끌뤼자(La Clusaz): 기존의 부락을 이용하여 스키장 개발이 이루어졌으며(성당의 종탑을 중심으로 도로를 따라 마을이 확장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스키장 건설로 인해 새로이 조성된 부대시설을 갖춘 건축물과 전통적인 목축업이 공존하는 관광 리조트가 형성되어 있다. 기존의 부락에서 스키장 건설이후 부대시설물이 들어서고, 도로를 따라 도시가 팽창하며, 계곡 주변으로는 개인용 별장이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하며, 도시의 수평, 수직적 팽창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 알프 뒤에즈(Alpe d'Huez): 제1세대의 유형, 봅슬레이 트랙(Bobsleigh track) 등 각종 스포츠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Club Med의 대규모 숙박, 위락 시설의 등장으로 인하여 각광받는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 꼭 슈벨(Courchevel): 산 정상 1850m의 제2세대 대표적 스키장, 동계 스키 관광객이 스키 슬로프를 가득 메울 정도로 각광 받는 곳이지만, 하계에는 기존의 정비된 슬로프가 풀 한 포기 없이 버려지고, 인적이 끊길 정도로 동계와 하계 관광객의 수가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 뵈란뉴(Plagne): 개인 기업에 의해 Resort가 건설되고 운영이 이루어진 제3세대의 대표적 유형이다. 건물 한 동에 모든 시설물이 정비되어져 있고, 스키 관광객은 이 건물 내에서 모든 활동, 즉 상점구입에서 각종 오락활동 등 스포츠 활동 이후의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 아크 밀 씨쌍(Arc 1600): 산악 지형에 가장 흔한 자연재해인 눈사태에 대비하여 경사면에 경사도와 일치하게 건설되어진 숙박시설의 유형인데, 이는 관광통계에 있어서 주요 기준이 되고 있는, 수용 능력 30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시설이라 할 수 있다.

- 띠느 뉘 밀(Tignes 2000): 해발 고도 2000m 이상의 제3세대 스키장의 대표적인 유형.

- 띠느(Tignes): Ski Lift가 지하로 건설되어

져, 동시 수용인원이 400여명에 이르는 cable car(전세계로 수출하는 기술 수준을 자랑하는 Grande motte cable car로 동시 탑승인원은 400여명)가 단시간에 대량의 인원을 수용하며, 또한 산 정상에서 반대편에 위치한 Val Claret라고 하는 스키장에서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연계시설이 되어 있는 제4세대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 발 끌라레(Val Claret): 주요 숙박, 오락 시설이 정비되었고 건축 양식과 기법이 특이한 모습인데, 건축가에 따르면 각 건물의 배치와 높낮이가 주변 산봉우리의 모양을 본떠 설계했다고 함.

- 발 토랑스(Val Thorens): 유럽 最高의 스키장으로 해발 2400m. Vanoise 국립 공원과 접하고 있으며, 스키장 확장계획이 있었으나, 환경학자들의 큰 반대로 무산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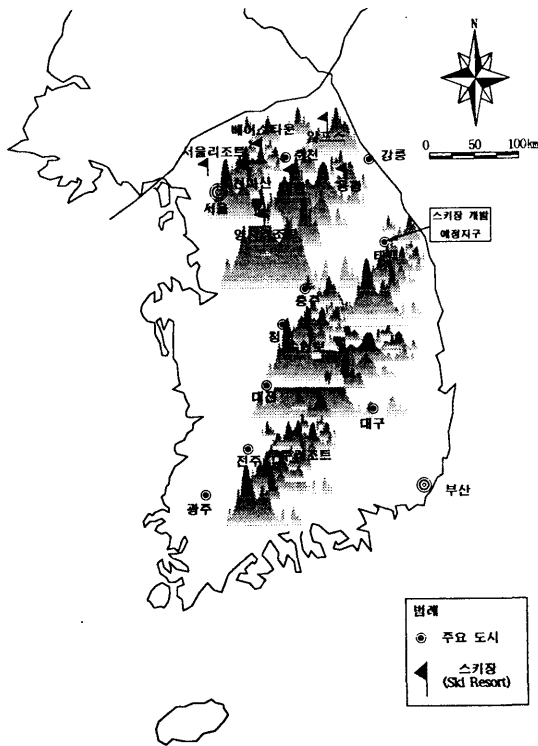
- 플렌느(Flaine): 부채꼴 모양의 새로운 스키 슬로프 개발의 개념이 도입된 대표적 유형으로 산 정상의 눈사태 방지를 위한 제방 작업의 흔적이 있다.

- 아보리아즈(Avoriaz): 동계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Event 행사로 환상영화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스키장이다. 건축 양식이 특이하고, 특히 주위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외부 건축 자재에 특별한 배려가 되었다.

- 슈뵈르볼뤼(Supervoluy): 일시 수용인원 5000여 명을 자랑하는 대규모 숙박시설이 개인 기업에 의해 건설되어 있다.

- 발 모렐(Val Morel): 제4세대의 대표적 유형으로, 슬로프 정상에서 인근의 스키장으로 스키관광객이 이동, 즐길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다. 주변 경관의 파괴를 막기 위해, 지하로 관광객 이동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기존부락에는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건축물에 전통 문양으로 장식하였다. 기존 부락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분수대 주변을, 현대적 감각과 전통양식의 조화를 고려, 단장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 뵈라 발 다오스트 이탈리아(Pila Val d'Aoste/Italie): 이탈리아의 국립공원 주변지역에 정비된 전형적인 스키장이다.



〈그림 2〉 한국의 스키장 개발 현황

- 앙제르 스위스(Angere/Suisse): 스위스의 아담한 소규모 스키장으로 과도한 인공시설의 설치없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이색적인 스키장이다.

### Ⅲ. 한국의 스키장 개발 배경과 문제점 조명

1975년 강원도 태백산맥의 용평을 선두로 우리에게도 생소하게만 느껴졌던 스키장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그 개발은 계속되어 왔으나, 개발과 정비에 있어서 종합적인 연구가 先行되지 못했으며, 자연자원은 주위환경과의 조화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괴되기 시작했다. 1975년에서 1983년까지는 산악지형을 이용한 관광지의 개발이 이어져 왔으나, 스키장 개발의 주체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대규모의 투자를 꺼리게 된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계 스포츠인 스키는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스포츠의 형태로서 한국

적 오락, 여가 문화에 접목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둘째, 지형적, 기후적 조건이 스키장 개발에 매우 불리하며, 따라서 개발에 따르는 인공적 시설물의 설치등 개발 초기 엄청난 투자비용이 소요된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셋째, 학술적인 연구와 설계 및 토목, 건축 공사의 know-how, 그리고 동계 스포츠 관련 개발분야의 不在는 잠재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른 관광 자원 개발, 즉 해안형 관광지(Seaside resort), 또는 골프장, 위락형 공원(Attraction park)등, 보다 수익성이 높고 안전성 있는 투자에 집중시켰다.

1983년부터, 사회전반에 걸친 경제 발전 분위기와 여가, 오락 문화의 변화는 새로운 스키장 개발로 이어졌으며, 이는 알프스 리조트, 베어스타운, 수안보, 양지 리조트, 무주 리조트 등으로 이어진다. 특히 최근 들어 경제 활성화는 사회전체적으로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고, 잠재적 동계 스포츠 관광객의 수적 증가를 이루었다. 이런 분위기는 1980년대 중반에 엄청난 자산 규모를 지닌 개인기업의 스키장 개발 투자를 유발시켰다(대부분 프랑스의 스키장 개발이 지역 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우리의 스키장 개발은 특히 개인 투자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한국의 스키장 개발은 특히나 홍콩, 대만 등 동남아 지역과 일본 등지에서 찾아들, 잠재 관광 수요를 감안한다면 막대한 관광 수입을 올릴 것이 예상돼, 미래의 주요 외화 획득수단이 될 것이다. 이는 특히 동계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그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용평과 무주 리조트는 아시안 게임 유치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기도 했다.

90년대 한국의 투자자들은 스키장 개발에 있어서 많은 장애를 무릅쓰고 시설 정비에 있어서 질적 향상을 이루었다. 이들 장애 요소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동계 스포츠 개발에 불리한 기상적 조건: 태백 산맥에 위치한 몇 개의 스키장, 즉 영동지방을 제외하고는 不足한 적설량과 적설기간<sup>6)</sup>, 이

## 스키장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의 배경과 정비에 따른 문제점

에 따른 인공설 생산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 불리한 지형적 조건: 몇 개의 스키장은 최정상이 겨우 해발 고도 600m밖에 되지 않고 Ski slope의 연장과 정상으로 부터 도착 지점까지의 해발고도차가 외국의 수준과 비교할 때 열악한 수준이다.

- 교통체계와 도로 조건의 미흡: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하여 스키장으로의 접근도로는 관광 수요가 폭증하는 동계에는 차량의 증가로 혼잡을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 수요가 폭증할 경우, 진입과 접근상의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장애 요소가 될것이다.

우리 나라는 대부분의 경우, 스키장 개발의 주체는 건설에서 부터 운영까지를 도맡아 오고 있으며, 그 소유권까지를 함께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 투자가가 스키장을 소유하고, 운영하며, 스키장 전반의 부대 시설, 즉 Ski lift, 스키 학교의 운영, 각종 행사(Events), 상업시설 등을 독점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의 독점화(Monopolization)"는 운영면에서 수익성유지를 위해서는 사업자 측에게는 유리한 반면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자연 자원의 질적 우수성을 무시한 환경파괴 현상을 유발했다. 서울 리조트의 경우, 개발 정비에 따른 생태계 파괴의 영향을 완전히 무시한 채, 산악 지형을 변형시켜, 스키장 건설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정부차원에서 환경정책의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우수한 자연환경의 파괴와 각종 환경 오염, 그리고 생태계 파괴를 지양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사회의 상류계층만이 향유하던 소비 성향이 높은 고급 스포츠로 인식되고, 좁은 국토에서 토지 이용률이 매우 높아 개발에 많은 규제가 가해졌던 동계 스포츠인 스키와 골프장 등, 이 두 가지 유형의 스포츠 시설 정비는 최근 들어 엄청난 개발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동계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스키장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미 건설한 산악형 관광지는 하계에 관광 수요가 폭증해 자연자원을 파괴한다는

지,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낳고 있으며, 이미 개발된 동계 스포츠 시설은 겨울철에만 이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스포츠, 레저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의 적절한 개발로 계절별 수요를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또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우리의 스키장 개발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천편일률적으로 알파인 스키(Ski alpin)만을 즐길 수 있는 스키장이 개발되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들의 스키장 개발은 지형적, 기후적 조건을 고려, 고산지대의 경사면을 이용한 알파인 스키와, 산악 지형 중 적설량이 풍부하고 적설기간이 비교적 긴 평지를 이용한 노르딕 스키(Ski de fond), 그리고 기존의 등산로 중 적설량이 많은 곳을 스키 슬로프(ski slope)와 연계, 개발한 등산스키(Ski de Randonnée)등으로 구분 개발하고 있어, 기존의 지형적 조건등 주위환경의 커다란 파괴없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스키장을 개발함에 있어 엄청난 비용 투자와 인공 건조물의 설치가 필수 불가결하며, 이를 스키장 개발의 기본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개발 주체자들에게 다각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나 기존에 건설된 우리의 스키리조트(ski resort)는 스키 관광객의 송출지라고 할 수 있는 대도시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외국의 스키 관광지와 비교해 볼 때, 숙박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스키 등 스포츠 활동 외에 각종 부대 시설, 즉 오락이나 여가 활동, 상업시설 등,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여 장기간 현지에서 체류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관광객은 현지에서 일박이상의 장기체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스키장의 개발자에게 있어서는 수익성에 큰 문제를 안겨 주고 있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스키장을 찾고 있는 동계 스포츠 관광객의 여가활동 행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2박 이상의 장기 체류 관광객의 경우, 스포츠 활동 외에 기타 여가활동(Activités d'après-ski)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는 것으로 밝혀져, 우리의 스키장 개발도 좀더 다양하고 효율

〈표 1〉 전국의 스키장 현황

	개장년도 (년)	면적(m <sup>2</sup> )	슬로프 개수	스키리프트 개수	정상고도 (m)	도착지점 고도(m)	하강고도차 (m)
용평 리조트	1975	4514000	18	16	1450	740	710
천마산 스키리조트	1982	165000	5	8	340	150	190
양지 리조트	1982	396000	7(총연장 2850m)	7	450	230	220
알프스 스키리조트	1984	478278	8(총연장 6870m)	5	900	600	300
베어스타운 리조트	1985	300000	7(총연장 6500m)	7	550	190	360
수안보 스키리조트	1989		7	4	1600	250	1350
무주 스노우리버*	1990	7330000	42**	8	1215	750	465
서울 리조트	1993	415918	5	3	572	220	352
대명 홍천 스키리조트	1993	999000	8	6			

\* 기타 부대시설로서 봅슬레이 트랙, 실내의 스케이트장, 국제회의장, 쇼핑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 총 42개 슬로프 가운데, 국제스키연맹(International Ski Federation)으로부터 인정받은 19개의 알파인 스키슬로프(Alpine ski slope), 연장 50km의 크로스컨트리 스키슬로프(crosscountry ski slope), 스키점프(Tremplins de saut)를 위한 국제경기용 90-120m, 연습용 35-60m, 높이용 5, 15, 20m 활강점프 시설 계획(슬로프 총연장 38km)

적인 시설의 도입과 경영의 다각화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Bears town resort와 무주 Snow river 등지에서 스키활동 외에 수영장과 테니스장, 골프장, 스케이트장 등, 2002년 동계 올림픽 개최를 위해 다양한 시설 정비가 이루어졌는데, 특히나 그간 동계 Ski season에만 이용되던 스키 리조트의 사계절 관광자원화라는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게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의 주체에게는 收益性의 提高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2년 동계올림픽을 무주 리조트에서, 1999년 용평 리조트에서는 동계 유니버시아드 경기 등을 유치하고자, 시설 정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제 경기에는 그 시설수준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의 국내에 건설된 10여개의 스키장은 관광객이나 국제 경기에 부수적으로 참가, 현지에서 머무르게 되는 방승인과 대규모 선수단을 유치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각종 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상태이며, 경기에 필요한 충분한 적설량과 스키 슬로프의 연장등 각종 경

기시설물과 기초시설물 등 사회 간접자본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국제 경기를 앞두고, 동계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보편화, 대중화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양적, 질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동계 스포츠 시설인 스키장의 개발은 이 분야에 있어서 오랜 역사를 지닌 외국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시행착오를 검토하고 우리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적 동계 스포츠 시설로서 스키장을 개발하여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끝으로 현재 개발된 스키장 현황을 도표로 소개해 본다.

〈주〉

- 1) Source: Poste d'expansion économique de Séoul, 1989  
 자료: 서울 경제 문제 연구소, 1989년
- 2) GUERIN (J. P.) - L'économie touristique en montagne: retour aux sources et marketing - 산

스키장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의 배경과 정비에 따른 문제점

악지형을 이용한 관광개발과 경제: 자원보호와 마케팅 -, L'institut de géographie alpine, Revue de Géographie Alpine, Produire et commercialiser l'espace touristique, Grenoble, 1990, 67 P.

3) BEAU (B.) - Développement et aménagement touristiques - 관광개발과 발전 -. Paris, 1992, 159 P.

4) KIM (H.S) - La place des parcs naturels dans l'aménagement touristique des espaces montagnards -, L'équilibre entre le développement économique et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Thèse soutenue à l'Institut de Géographie Alpine de l'Université de Grenoble I, 1995, Grenoble, 395 P.

김형서 - 산악지형의 관광 개발에 있어서 자연공원의 역할과 기능, 경제개발과 환경보호와의 조화 -,

그르노블 제I대학교 알프스 산악지리 연구소 박사 학위 논문.

5) HERBIN (J). -" Génération des stations de ski de France - " 프랑스 스키장의 세대구분, Revue de Géographie Alpine, 1991, Grenoble, P. 12-18.

6) 관광활동은 기후적 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특히나 동계 스포츠인 스키의 경우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스키를 즐기기 위해서는 최소 30내지 40cm의 적설량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다. 또한 투자비용의 수익성을 고려할 때, 적어도 120일 간의 적설기간과 Ski slope와日光, 그리고 풍향과의 관계를 검토해 적설된 눈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스키를 즐기는 관광객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기후와 동계 스포츠의 관계 -BESANCENOT. J. P. 1990, 213 P.).



## L'aménagement et le développement des stations de ski en Corée du Sud.

M. KIM, Hyeong Seo\*

### Résumé

En 1975, la première station de ski, Youngpyeong a été aménagée dans la chaîne montagneuse de Taebaek. Depuis, le développement des sports de glisse a été continu bien que lent et sans réflexions coordonnées.

De 1975 à 1983, l'aménagement de la montagne s'est poursuivi lentement, les promoteurs ne souhaitant pas procéder à des investissements importants pour de multiples raisons :

- le ski était un sport nouveau, quasiment inconnu chez les Coréens et loin de leur culture ludique et récréative.

- le relief et les conditions météorologiques, peu adaptées au développement des sports de glisse et nécessitant la mise en place d'infrastructures artificielles.

- le manque total de savoir-faire, tant dans le cadre des études préliminaires que dans les travaux d'ingénierie et dans l'ensemble des secteurs liés au développement des sports de glisse, a contribué à détourner les investisseurs potentiels vers d'autres sources de profits plus "assurés" telles que les sites balnéaires ou les terrains de golf, parcs de loisirs, etc.

A partir de 1983, les composantes socio-économiques vont évoluer de façon favorable, permettant le développement de nouveaux projets. Ce fut l'ouverture d'Alps, Bears town, Suanbo, Yangji et Muju.

La conjoncture économique favorable des dernières années permet en effet à certains investisseurs de dégager des masses d'argent importantes qui ont servi au financement des nouveaux projets. Dans le même contexte socio-économique, l'élévation du niveau de vie moyen des Coréens, pendant la deuxième moitié des années 80, a permis d'accroître rapidement le nombre des clients potentiels.

Le développement du ski en Corée du Sud tient donc de l'initiative privée de groupes ou d'individus dont la fortune personnelle et le patrimoine sont très importants. A la différence de la majorité des stations françaises, les stations coréennes reposent exclusivement entre les mains d'investisseurs privés.

Le ski coréen devient aussi une source de devises avec l'arrivée d'une clientèle venue du

---

\* Docteur en Science humaine (Géographie) de l'Université de Grenoble I/Joseph Fourier.  
Chercheur de l'Institut de Géographie Alpine (LAMA URA 344 du C.N.R.S.)  
Maître de conférence à la faculté (Département du Tourisme) de Taesung Junior College

## L'aménagement et le développement des stations de ski en Corée du Sud

Japon, de Taiwan ou de Hongkong. Les stations de ski cherchent alors à se distinguer et, rapidement, la lutte entre Muju et Youngpyeong se fait sentir, en particulier sur les prétentions d'accueil des compétitions internationales, des Jeux asiatiques.

Dans les années 90, les investisseurs coréens mettront davantage l'accent sur la qualité, malgré les obstacles physiques significatifs pour le développement des sports d'hiver :

- Des conditions météorologiques peu adaptées : un enneigement assez faible (avec les précipitations nivales les plus importantes au nord-est de Séoul, dans les stations d'Alps Resort et Youngpyeong, situées dans le massif de Taebaek), qui entraîne des besoins importants un enneigement artificiel.

- Des dénivelés modérés avec des montagnes peu élevées : certaines stations ont leur sommet à 600 mètres d'altitude.

- Le désenclavement retardé : l'accès aux stations de ski reste difficile et compliqué du fait des embouteillages à la sortie des villes, et du manque d'infrastructures routières et ferroviaires. Jusqu'à présent, les difficultés d'accès n'ont pas vraiment exercé une influence significative sur la fréquentation des stations de ski. Mais si l'offre devient plus importante, les Coréens préféreront sans doute des stations de ski aménagées sur les axes plus accessibles ou mieux desservies par les voies ferroviaires et routières.

En Corée du Sud, dans la plupart des cas, les constructeurs des stations de ski en sont aussi les gestionnaires ou propriétaires de terrain. Cela signifie qu'un seul investisseur possède, gère et assure la maintenance de l'ensemble d'une station de sports d'hiver (y compris les remontées mécaniques, l'organisation de l'école de ski et l'animation, ainsi que les commerces locaux, etc.). Les propriétaires recherchent donc avant tout, en aménageant une station, à réaliser un bon investissement et à rentabiliser leur patrimoine foncier. Cette "monopolisation" est sans doute mieux adaptée pour la rentabilité et les questions gestionnaires, mais d'un autre côté, les impacts environnementaux et la qualité du milieu naturel sont souvent exclus des préoccupations des investisseurs. On constate d'ailleurs souvent les effets survenus après avoir aménagé des pistes et des remontées mécaniques, sans réflexion ; en été, les pistes "deshabillées", sans couverture végétale, les équipements de remontée mécanique, "ferrailles abandonnées, sans fonction", forment une scène monstrueuse et dégradent évidemment le paysage du milieu naturel. On constate également que les stations de ski en Corée du Sud sont créées "ex-nihilo", ce qui laisse peu d'espoir d'offre d'emploi auprès des habitants locaux ; d'autres part, les structures d'accueil et les équipements sont implantés "brutalement", sans recherche d'harmonisation avec l'environnement préexistant. En fait, la rentabilité de l'investissement prime sur la préservation de l'environnement (qualité paysagère, écosystème, etc.) et sur les aspects socio-économiques (critères d'urbanisme, POS.). Le patrimoine naturel et humain d'un site n'a ainsi pas fait l'objet d'une sauvegarde des richesses du milieu naturel.

Pourtant il est de l'intérêt des investisseurs de respecter le plus possible la nature, l'environnement ainsi que le site d'origine pour un succès gestionnaire, puisque tous ces éléments constituent un atout touristique non-négligeable pour la clientèle.

**Mots-clés:** aménagement des espaces montagnards, station de ski, fréquentation touristique, développement économique, protection de l'environnement